

■민선6기 윤장현 광주시장 공약

1. 참여한 자치도시
1-1. 시청혁신을 위한 조직 경영진단과 조직개편
1-2.투명한 클린행정 실현
1-3. 공무원이 신바람 나는 시청 구현
1-4. 창조적 민주행정 실현
1-5. 과학적인 스마트 행정도시 추진
1-6. 공기업·출자출연기관 혁신
1-7.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1-8.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소통 강화형으로 개편
1-9. 경청과 배려의 시장 리더십으로 권위주의 청산
1-10. 시장의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
1-11. 공유도시문화 안내 플랫폼 “공유도시지도”
1-12. 정책영향평가제 도입
1-13. 건전재정 운영 전략 수립
1-14. 광주정신에 입각한 광주공동체 구현
1-15.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컨설팅 센터 운영
2. 평등한 인권도시
2-1.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도시 구현
2-2. 민주·인권·평화 캠페인 조성 사업
2-3. 인권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단체가입 확대
2-4.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
2-5.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광주 조성
2-6. 아시아역 재해 대응과 지원
2-7. 아시아 광주진료소 설립 지원
2-8. 장애인을 위한 자생바스 공급 확대
2-9. 광주트라우마센터 지원체계 구축
3. 안전한 푸른도시
3-1. 안전한 도시환경기반과 시스템 구축
3-2. 현장 맞춤형의 안전한 도로 정비
3-3. 도시 미래계획 수립에서 시민참여 보장
3-4. 광주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 주택건설
3-5. 시민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3-6. 안전한 녹색교통환경 구축
3-7. 생명이 살아있는 광주천 및 지천 복원
3-8. 시민중심 푸른도시 조성 거버넌스 활성화
3-9. 시민건강과 교육에 기여하는 공원녹지
3-10. 푸른도시 위한 기후행동계획 수립
3-11. 걸을 수 있는 도시만들기
3-12. 무장애 및 영산강권 생태관광명소 조성
4. 따뜻한 복지도시
4-1.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으로 생활복지 실현
4-2. 광주형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구축
4-3. 100세 시대 대비 노인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4-4. 자존감을 살리는 노인일자리 창출
4-5. 경로당을 ‘주민의 집’으로 전환
4-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7.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4-8. 청년·대학생 정책 전담부서 신설
4-9. 50·60 퇴직자의 인생이모작 평생교육
4-10. 여성 행복도시 조성
4-11. 광주 주거기준선 마련
4-12. 시민건강협력체계 구축
4-13. 전문 주치의(담당의제) 확대 운영
4-14.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4-15.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5. 넉넉한 경제도시
5-1.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1만개 창출
5-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5-3. 미스매치 인력난 해소 시스템 구축
5-4. 광주 자동차 산업밸리 육성
5-5.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5-6. 100대 강소기업 선정 육성
5-7. 자영업, 중소기업인, 중소기업 직원
5-8. 사회적경제 모델도시(협동조합 중심) 육성
5-9. 스마트 팜 과학영농단지 육성
5-10. 광주권 의료서비스 고도화
5-11.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5-12. 신기술페어 개최·기술이전 거래센터 활성화
5-13. 광주형 스마트밸리 조성
5-14. 지역 과학기술 역량강화
5-15. 치과 및 의료용 건강기술 소재산업 육성
5-16. 광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 구축
5-17. 외식산업육성
5-18. 김치산업 육성
5-19. 친환경기능성 식품개발 및 산업화
6. 꿈꾸는 문화도시
6-1. 문화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 조성
6-2.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견인과 연계 강화
6-3.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6-4. ICT융합클러스터 조성
6-5. 청년문화예술의 거점 도시 조성
6-6.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6-7. 전통문화 예술 지원 강화
6-8. 한국문화재단총원 설립
6-9.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 관광명소 개발
6-10. MICE 대표도시 육성
6-11. 광주~전남·북~제주 관광네트워크 구축
6-12. 생활체육 진흥
6-13. 장애인체육 진흥
6-14. 웰리스 스포츠 중진

■민선 6기 100일...광주시·전남도 확정 공약 들여다보니

광주, 자동차 밸리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전남, 10조원 투입해 지역경제 기반 구축

광주시와 전남도는 7일 민선 6기 대표 공약을 확정했다. 광주는 6대 분야, 84개 과제, 전남은 7대 분야 76개 과제를 세부 실천계획과 함께 공시했다. 공약분석을 통해 시·도의 행정 방향을 전망해보고 특색 있는 공약을 살펴본다.

◇‘시민 중심 시장 운영’ 광주=윤장현 광주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사회협약을 통해 광주형 좋은 일자리인 연평균 4000만원 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광주 자동차 산업 벨리를 육성하고, 자동차 산업 투자와 튜닝과 같은 새로운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 등에는 자동차 산단도 조성한다. 100대 강소기업 선정·육성과 함께 자영업(골목상권), 중소기업인,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권익보호에도 나선다. 노무사 근무 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알바 지킴이’를 선발해 아르바이트 노동 권리 보호 업무를 맡기로 했다. 알바지킴이는 내년 2월부터 활동한다.

문화도시답게 내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문화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놔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정, 학교, 문화예술인들이 생활속에서 창조적 융합을 하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빛가람 혁신도시, 송암산업단지에 조성되는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잇는 삼각벨트를 구축해 광주를 창조적 문화산업의 메

市, 국장급 이상 결재 정보 공개...24개 산하기관 체질개선 道, 동부권 제2청사·공공형 산후조리원·100원 택시 운영

광전발연 통합 일보 후퇴...광주 84개·전남 76개 과제 공시

카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투명한 클린 행정도 과제로 제시됐다. 시는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모든 문서의 제목을 당일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일주일내에 원문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감사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감사가능도 대폭 강화된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 작업도 단행된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24개 산하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에 나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다.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직접 민주제적 의사 결정 강화도 핵심 공약이다. 이를 위해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등 상시적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아고라500 등 직접민주주의제적 의사결정 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 환경과 관련한 각종 미래계획 수립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진다. 특히 도시경관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주민이 공공 공간 조성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른바 ‘경청행정’도 추진된다. 우선 연중 주요 현안 발생시 ‘1일 시민시장제’를 운영한다. 시장과 일정을 함께하며 자신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눈으로 보는 명예부시장제’도 운영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장애인과 여

성, 환경, 교통, 상인, 대학생 등 부문·직능별로 위촉하고, 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그들만의 시각에 본 다양한 의견들을 시장과 공유하게 된다. 또한 ‘광주 구석구석 현장투어’도 도입해 ‘현장시장살’과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에 걸맞게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아시아 재해 긴급구호 협의기구성 등 아시아지역 재해 지원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미얀마 등 낙후한 국가에 아시아 광주 진료소를 설립·지원해 5·18 광주정신의 세계화와 광주이미지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컨설팅 센터가 내년 6월부터 운영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치적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다이빙티모 창단 예정이다.

◇전남 10조 투입~경쟁력 확보=전남도는 민선 6기 76개 공약 중 임기 내 완료 가능한 공약은 49건, 임기 후까지 추진할 공약은 27건으로 분류했다.

이들 공약 모두를 이행하는 데는 국비 12조7226억원, 도비 6642억원, 시·군비 8197억원, 민자 3조2776억원 등 모두 17조8089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기 투자액은 7조98억원

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전남도는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농·축·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동북아 관광문화의 거점 조성,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 쾌적한 환경의 보전관리, 생산적 도민복지 실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구현 등 7개 분야로 공약을 분류했다.

이 가운데 핵심공약은 10개로, 이 가운데 ▲동부권에 실질적 ‘제2청사’ 신설 ▲100원 택시 운영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광양제철~여수산단 해저터널 구축 지원 등은 이미 완료됐거나 본 궤도에 오른 상태다. 나머지 ▲전남도 인증어린이집 지정 및 공공립 어린이집 확충 ▲버스 경영제 도입 ▲도민의 문화향유기반 확충 ▲1군 1소방서 및 119구조대 설치▲친환경농업 내실화 등도 추진중이다.

농도이면서 노인 인구가 많고 자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전남도의 특이 공약으로는 저농약 대체 신규 인증제 도입, 청자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전환, 갯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승격 추진, 광역치매센터 유치, 전남예산정책센터 전남도의회 내 설치 등이 꼽힌다.

한편 당초 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역할을 제고하는 것으로 후퇴했으며, 공유수익 임대수익 채고방안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변경돼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공약사항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 50명으로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공약실천계획의 타당성 검토, 이행상황 점검 등을 맡길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벨물리학상 日 아카사키

청색 LED 개발 3인 공동 수상



아카사키 교수 아마노 교수 나카무라 교수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밝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백색 광원 개발을 가능케 한 효율성 높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한 일본 나고야대학 아카사키 이사무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 올해 물리학상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광원인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발명한 아카사키 교수와 같은 대학 아마노 히로시,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주립대(UC샌타바버라) 나카무라 유지 교수 등 3명에게 수여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에 대해 “LED 램프의 등장으로 기존의 광원을 대신할 수 있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대안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800만 크로네(약 110만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완도~여수 연안

적조주의보 해제

국립수산과학원은 7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남 연안(완도군~여수시)과 부산시 연안(강서구~기장군)에 내려진 적조주의보를 해제했다. 경남 통영시~거제시 연안에 발령 중인 적조경보는 적조주의보로 대체했다.

전남 연안과 부산시 연안에서는 수일 전부터 유해성 적조생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남 연안(남해~통영)은 적조생물이 국지적으로 남아있지만 확산할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민선6기 이낙연 전남지사 공약

1.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1-1.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1-2. 광양제철~여수산단 해저터널 구축 지원
1-3. 백신산업 지원기반 집적화 추진
1-4. 미래 첨단 우주·항공산업 육성
1-5.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추진
1-6. 해상 풍력 발전의 메카도약
1-7. 전남 풍력산업육성 추진단 설치
1-8. 전력 계통망 연결 추진
1-9.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조례 제정
1-10. 사회적기업 조기정책 지원
1-11.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비율 의무적 공시
2. 농·축·어업의국제경쟁력 확보
2-1. 저비용 고수익 농업 기술 창출
2-2. 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거점 육성
2-3. 수산업의 저비용고소득 구조로 개편
2-4. 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2-5. 친환경 인증농업 농가부담 경감
2-6.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2-7. 저농약 대체 신규 인증제 도입
2-8. 유기농 T/F팀 운영 및 유기농기술개발 보급
2-9. 유기농 선도지역 육성(해남)
2-10. 농업정보 전담팀 운영
2-11.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 지원
2-12. 보성녹차산업 신제품 연구개발 및 수출지원
2-13. 대규모 어업기지 조성
2-14. 수산물산지거점 유통 센터 확대 조성
2-15.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추진
2-16. 첨단기술 도입 천일염 고급화 세계화
2-17. 해조류 등 수산생물 종자 연구개발 중심육성
3. 동북아 관광문화의 거점 조성
3-1. 섬, 갯벌 등 관광명소 조성
3-2.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3-3.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한 축제운영
3-4. 국립아시아전당과 연계한 문화 관광 활성화
3-5. 유류 공공시설 활용 작은영화관 조성
3-6. 극장이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3-7. 설전장 기차마을, 체류형 관광클러스터 조성
3-8. 2015담당 세계대나무 박물관 지원
3-9. 축령산 편백소 활용 산림치유마을 조성
3-10. 지리산 산림복합 휴양단지 조성(구례)
3-11. 순천만 정원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3-12. 청자 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전환
4.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
4-1.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4-2. 삼포지구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
4-3. 여수 박물관청 사후활용 지원
4-4. 연륙 연도교 조기완공 및 착공
4-5. 광양항을 세계적 항만으로 육성
4-6. 진도항 배후지 개발
4-7. 목포항 권역별 특화 개발 추진
4-8.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4-9. 100원 택시 운영
4-10. 버스 공영제 도입
5. 쾌적한 환경의 보전관리
5-1. 동부권에 실질적 제2청사 신설
5-2. 산업단지 환경관리권 기초자치단체 권한 확대
5-3. 갯벌의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승격 추진
5-4.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5-5. 1군 1소방서 및 119구조대 설치
5-6.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건의
6. 생산적 도민복지 실현
6-1.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6-2.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운영
6-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4.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5. 사회 복지조사처 치유개선
6-6. 광역치매센터 유치
6-7. 통합의학 활성화 거점 육성
6-8. 인권침해 장애인 보호센터 및 쉼터 설치운영
6-9.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추진
6-10. 인제 육성을 위한 제2 남도학숙 건립
7.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구현
7-1. 도민 중심의 소통도정 운영
7-2.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평가제도 운영
7-3. 순세계 잉여금 30%이상 지방재 원리금 상환
7-4. 낭비성 예산절감
7-5. 도 시책추진경비 한도액의 90% 사용
7-6. 전남예산정책센터 전남도의회 내 설치
7-7.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등 정치마련
7-8.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7-9. 공직자의 청의적인 업무수행지원시스템 구축
7-10. 전남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역할 제고